

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가을 남도는 축제의 바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가을 광주·전남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가을 축제가 이어진다.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산업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한미당이다. 훈훈한 남도의 정취가 물씬 배인 축제 현장에 가면 알짜배기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다.

“알짜배기 ‘맛과 멋’ 찾는다면 당연히 광주죠”

32 남도 가을축제 - 광주

광주에서는 지난 5일 개막된 '2008 광주비엔날레'를 시작으로 국악 임방울국악제, 충장로 축제, 광주 김치축제, 정월성 국제음악제 등이 연이어 열린다.

◇광주김치축제=전통음식인 김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위해 매년 열리는 '2008 광주김치축제'가 10월 15일부터 닷새동안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김치는 문화다'를 주제로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행사로 치러진다. 개막행사인 '김치는 미래다'와 김치산업 학술세미나, 폐막행사인 '김치는 공동체다'를 비롯한 기법마당과 김치 오감(五感) 박물관, 김치문화 너른마당, 김치아트가든, 솔밭사이 예술무대, 잔치마당, 김치마켓, 광주식도락거리 등 8개 마당, 5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같은 공간에서 축제가 열려 어느 때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체의 다섯 가지 감각으로 김치의 맛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오감(五感) 박물관'을 새롭게 구성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곳에는 김치의 역사, 명인 갤러리, 체험관 등이 들어서고 팔도김치를 전시한다.

김치문화 너른마당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하는 '사랑나눔 김치담그기'와 김치경연대회, 김치체험장이 들어선다. 행사 기간 중 상시 운영되는 김치체험장에서는 김치명인과 도우미가 김치담그기 체험을 돕는다.

김치아트가든에서는 '김치의 비밀을 찾아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솔밭사이 예술무대에서는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진 공연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을 맞는다.

김치마켓과 식도락 거리에는 광주 김치를 사고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식당, 특산물판매업체가 자리한다.

김치축제추진위원회는 김치축제 홈페이지(www.kimchi.gwangju.kr)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광주별미식당, 특산물관매점, 김치생산업체를 모집하고 김치담그기 경연대회 참가자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충장 축제=제5회 충장 축제는 가을이 깊어가는 다음달 7~12일 충장로와 금남로 등 구 도심을 주 무대로 열린다. 1970~1980년대 추억을 중심 테마로 36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추억의 축제로 진행된다.

충장거리페스티벌과 멀티미디어쇼, 추억의 동창회, 추억의 7080 충장열차, 추억의 포크송, 2030페



지난해 광주김치축제 행사 기간 중 광주시립박물관 앞에서 열린 '사랑나눔 김치담그기'에 참가, 활짝 웃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아래는 2007 정월성 국제음악제 한중연합합창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김치축제·충장축제, 참여·체험 프로그램 강화 정월성음악제·임방울국악제 등 음악 향연도

스티벌, 충장로골목김문화제, 아시아예술단초청공연 등 다양한 체험·공연·퍼포먼스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축제 기간 중 곳곳에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는 추억의 거리가 조성되며 다문화가족 추억이야기, 충장거리화가예술품, 향토기업축제, 전국학생사생대회, 해외상품시장 등 부대행사도 곁들여진다.

동구는 축제 기간 중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에서 전국 시·도 추천 각 2팀씩 60개 팀이 참가하는 '제1

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10월 11일에는 코레일과 함께 축제 홍보를 위해 서울~광주간 '충장열차'를 운행한다.

◇정월성 국제음악제=중국에서 항일투쟁과 탁월한 음악적 업적으로 중국 3대 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는 광주 출신 정월성의 삶과 음악을 재조명하는 행사로 4회제를 맞아 다음달 23~25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화합의 선율, 평화의 축제'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에는 150여명의 중국 난창(南昌)시 공연단 및 대표단이 참석하며 광주시립교향악단과 난창 공연단, 싱가포르·태국·중국·일본 등지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아시아한가죽 공연으로 꾸며진다. 2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전야제에서는 세계 최고의 아카펠라그룹으로 꼽히는 '스윙클 싱어스'가 재기 발랄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에 앞서 9월 27일 중국 난창시에서도 광주정월성국제음악제 조직위와 광주시 관계자, 어린이합창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월성 음악회'가 열린다.

시 관계자는 "가을 축제를 계기로 광주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대학생 자원봉사단 관광 홍보활동 나선다

광주시 대학생 자원봉사단이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 관광 홍보에 나선다.

광주시와 시 자원봉사센터는 20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 관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지역 대학생 봉사단 120여명과 관광객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관광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이어 정화활동 등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터미널 앞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광주 방문객들에게 광주비엔날레, 광주김치축제, 국악 임방울국악제, '2009 광주세계관광엑스포' 홍보 리플릿과 관광안내 책자, 관광안내지도 등 1만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생산한 수돗물인 '빛여울수' 1천여병도 함께 제공한다.

이에 앞서 지난 12~13일 광주시 도시마케팅본부와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역스포츠진흥재단, 한국관광산업진흥회, 광주관광협회 등은 추석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동광주톨게이트, 고속버스터미널, 광주역 등에서 관광홍보활동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이자 세계 3대 비엔날레로 도약한 광주비엔날레가 열려 여행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대학생들이 직접 나서 관광문화지원을 알리는 것은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전남대 교수들 영문 관광안내 책자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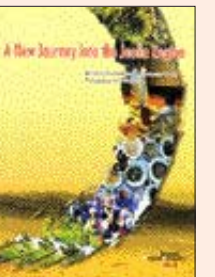
전남대 교수들이 전라도를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 책자를 출간했다.

'2008 광주 전남 방문의 해'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맞아 최근 제작된 'A New Journey into the Jeolla Region'(전라도로 가는 새로운 여행·전남대학교출판부 펴냄)은 지난 2005년 전라도 문화유산 소개를 위해 출간된 '전라도를 다시 본다'(전남대학교출판부 펴냄)를 김달용(영어교육학과) 교수가 번역한 것.

책은 ▲전남의 옛집, 호남 정맥 보성 등을 다룬 '터와 살림(Living Sites and Livelihood)' ▲전남의 명산과 숲, 식물을 소개한 '땅의 숨결(The Breath of the Earth)' ▲전라도의 문화 지도와 민속 등을 담은 '말과 몸짓(Language and Gestures)' ▲남도의 관소리와 기악 음악 등을 전하는 '소리와 빛깔(Sounds and Colors)' ▲전라도의 음식과 술, 차 등을 서술한 '맛과 멋(Tastes and Stylishness)' ▲근대 민중 운동의 지도자들을 소개한 '꿈과 흔적(Dreams and Traces)' 등 6개로 나뉘어 있다.

저자들은 전문적 식견을 곁들여 전라도의 문화유산을 설명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시대별 정치·사회적 이슈도 함께 다루 전라도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원저는 건축학과, 박물관(지리교육과), 나경수(국어교육과), 신경호(미술교육과) 교수 등 전남대 교수 25명이 참여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푸른호수, 푸른숲속
전원주택단지 선착순 본격분양개시

자연IN

화순 시정리 전원주택마을 분양사무소 (052)653-9870

당신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발의 건강을 지키는 푸른리본수제비네트슈

1. 발의 건강을 지키는 푸른리본수제비네트슈
2. 발의 건강을 지키는 푸른리본수제비네트슈
3. 발의 건강을 지키는 푸른리본수제비네트슈
4. 발의 건강을 지키는 푸른리본수제비네트슈
5. 발의 건강을 지키는 푸른리본수제비네트슈
6. 발의 건강을 지키는 푸른리본수제비네트슈
7. 발의 건강을 지키는 푸른리본수제비네트슈
8. 발의 건강을 지키는 푸른리본수제비네트슈
9. 발의 건강을 지키는 푸른리본수제비네트슈
10. 발의 건강을 지키는 푸른리본수제비네트슈